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연실¹ · 박정애¹ · 이윤정²

¹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Youn Sil Kim¹ · Jung Ae Park¹ · Yun Jeong Lee²

¹*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kotdongnae University,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9권 제2호 2025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9, No. 2, June. 2025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연실¹ · 박정애¹ · 이윤정²

¹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Youn Sil Kim¹ · Jung Ae Park¹ · Yun Jeong Lee²

¹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kottongnae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Method :** Data were collected from 140 nursing students from January to February, 202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Results :** The mean scores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3.72 ± 0.52 (out of 5), communication skills was 3.85 ± 0.48 (out of 5)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as 3.49 ± 0.52 (out of 5). There wer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intelligence ($r = .70, p < .001$), communication skills ($r = .68, p < .001$).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emotional intelligence ($\beta = .44, p < .001$) and communication skills ($\beta = .34, p < .001$), which explained about 53.0% of psychological well-being. **Conclusion :**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Therefore, to enha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we propose developing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ncreas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Nursing stud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있으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른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며 학업문제, 대인관계 문제, 취업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를 준비하는 학생으로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전공학문, 교과 외 활동 등 통합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과 수업을 병행하며, 과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집단이라 볼 수 있으며[2], 이러한 특성은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인생 전반에 대한 개인이 느끼는 행복 또는 만족에 대한 정도로[3], 사회 구성원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4].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5] 건강한 대학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취업 후에도 간호사로 생활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매우 중요하다[6].

현대의 병원 조직은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 의식 신장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간호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감정을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7].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보호자 혹은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며, 타 의료직종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감성 능력이 요구된다[8].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9]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자신 및 타인 감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10].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대학 생활 적응은 물론 간호 전문직관[11], 임상실습 스트레스[12], 돌봄 효능감[13] 및 사회적 지지와 학업소진[1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17]. 다양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라 한다[18].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및 자아존중감[19], 공감 능력 및 인간중심 간호[10], 셀프리더십[20]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로[15] 다양한 요구가 있는 간호의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21].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와 대처[6], 자아탄력성, 정서조절, 전공만족도[22],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7],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23]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Won과 Choi[24]는 감성지능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이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다룬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심리적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학생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인의 수 5로 최소 표본 수는 138명 이었다[4]. 탈락률 약 10%을 고려하여 15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누락 및 잘못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 14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Jung 등[25]이 개발한 한국어판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16개의 총 문항에 하위 4개 영역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감성지능을 의미한다. Jung 등[25]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Rubin 등[26]이 개발한 것을 Hur[2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의 1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ur[27]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와 Keyes[3]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Kang과 Lee[28]가 요인분석하여 2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6개의 하위 영역으로 자기수용, 긍정적인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8]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윤리적 고려를 위해 C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2022-003-000-09)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대를 활용하였고, 연구자가 담당하는 수업의 수강생에게는 공동 연구자가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연구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료 활용 및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설문지 작성 전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은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결과 발표 시점으로 3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5~20분이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3.16 ± 2.09 세이며, 성별은 여학생이 113명(80.7%), 남학생이 27명(19.3%)이었다. 임상에서의 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은 77명(55.0%)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감성지능은 나이($F = 0.01, p = .993$), 성별($t = -0.18, p = .858$), 임상실습 경험($t = -1.67, p = .09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나이($F = 0.07, p = .756$), 성별($t = -0.09, p = .928$), 임상실습 경험($t = -0.26, p = .799$)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나이($F = 0.01, p = .964$), 성별($t = 0.54, p = .585$), 임상실습 경험($t = -0.89, p = .373$)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 정도

감성지능은 평균 3.72 ± 0.52 , 의사소통 능력은 3.85 ± 0.48 , 심리적 안녕감은 3.49 ± 0.52 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에서는 감성활용(3.76 ± 0.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감성조절(3.62 ± 0.64)이 가장 낮았으며, 심리적 안녕감 하위영역에서는 환경통제(3.67 ± 0.63), 자아의 성장(3.61 ± 0.68)이 높게 나타났고, 자율성(3.14 ± 0.7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과 감성지능($r = .70, p < .001$), 심리적 안녕감과 의사소통

Table 1.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 = 140)

Variables	Characteristics	Mean ±SD	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well-being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years)		23.16 ±2.09							
	≤21		37(26.4)	3.72 ±0.45		3.82 ±0.44		3.49 ±0.52	
	22~23		55(39.3)	3.72 ±0.54	0.01 (.993)	3.89 ±0.48	0.07 (.756)	3.50 ±0.49	0.01 (.964)
	≥24		48(34.3)	3.71 ±0.55		3.83 ±0.51		3.48 ±0.54	
Gender	Male		27(19.3)	3.70 ±0.55	-0.18 (.858)	3.84 ±0.49	-0.09 (.928)	3.54 ±0.56	0.54 (.585)
	Female		113(80.7)	3.72 ±0.51		3.85 ±0.47		3.48 ±0.5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77(55.0)	3.78 ±0.49	-1.67 (.096)	3.86 ±0.47	-0.26 (.799)	3.53 ±0.48	-0.89 (.373)
	Yes		63(45.0)	3.63 ±0.55		3.84 ±0.50		3.45 ±0.57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Result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 = 140)

Variables	Mean±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3.72±0.52	2.38	5.0
Self-emotional appraisal	3.74±0.55	2.05	5.0
Other's emotional appraisal	3.74±0.58	2.25	5.0
Regulation of emotion	3.62±0.64	2.25	5.0
Use of emotion	3.76±0.57	2.25	5.0
Communication skills	3.85±0.48	2.20	5.0
Psychological well-being	3.49±0.52	2.12	5.0
Self-acceptance	3.53±0.69	2.00	5.0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3.50±0.76	1.80	5.0
Environmental mastery	3.67±0.63	2.00	5.0
Autonomy	3.14±0.70	1.67	5.0
Purpose in life	3.49±0.73	2.00	5.0
Personal growth	3.61±0.68	2.00	5.0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 = 140)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well-being
	<i>r</i> (<i>p</i>)		
Emotional intelligence	1		
Communication skills	.77(<.001)	1	
Psychological well-being	.70(<.001)	.68(<.001)	1

능력($r=.68, p<.001$),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r=.77, p<.001$)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선성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범위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045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한계 값은 1.0으로 0.1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감성지능($\beta=.44, p<.001$), 의사소통 능력($\beta=.34, p<.001$)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Table 4. Factors on Psychological Well-being (N = 140)

Variables	B	SE	β	t	<i>p</i>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0.41	0.25		1.66	.099		
Emotional intelligence	0.45	0.09	.44	4.89	.000	.410	2.44
Communication skills	0.37	0.10	.34	3.74	.000	.410	2.44

 $R^2=.54$, Adjusted $R^2=.53$, $F=13.96$, $p<.001$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53%이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평균 3.72점(5점 만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12,13,15] 결과와 일치한다.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는 감성조절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조절 영역은 특정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행동을 예측, 조치, 실천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과과정 상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중요하므로 [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3.85점(5점 만점)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한 선행연구[10]의 결과에서도 3.8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협력에 필요한 대인관계 중심의 간호조직에 있어 그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7], 임상 수행 능력의 기반이 되므로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9].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 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3.49점(5점 만점)으로 선행연구[23]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의 심리적 안녕감 2.96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생존을 위한 ‘취업’을 고민하는 일상을 보내는[31] 반면,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상 비교적 취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의사소통 능력과 상관성을 확인한 선행연구[4,7,8,23,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13,23,24],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 이를 바탕으로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은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감성지능 향상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간호학 전공의 실습 및 이론 교과과정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24], 간호대학생과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7,32]와 일치한다. 이는 감성지능이 발달 될수록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하고[23],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 연구[32]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여 활용하는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며, 간호대학

생 개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의 개발과 증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간호대학생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Lee와 Gu[8]는 감성지능이 교육과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아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여, 감성지능의 개발과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32] 정규 교과목 편성 이외에도 워크숍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 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표본으로 수행하여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감성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Kim KM, Lim JH. Effects of optimism and orientations to happin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2;50(1):89-101.
<https://doi.org/10.6115/khea.2012.50.1.089>
2. Lee YE, Kim EY, Park SH.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7;23(3):385-393.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3. Ryff CD, Keyes CLM.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69(4):719.
4. Choi YJ, Sung YH.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 19(5):589-598.
<https://doi.org/10.11111/jkana.2013.19.5.589>
5. Joo DY, Park JH, Ju SJ.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gratitude disposi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es in charge of home care 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023;13(1):119-128.
<https://doi.org/10.33502/JKSMH.13.1.119>
6. Song JH, Kim NS. The effects of life stress,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2024;8(8): 1759-1767.
<http://doi.org/10.33097/JNCTA.2024.08.8.1759>
7. Kim EA.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3):91-99.
<https://doi.org/10.15207/JKCS.2018.9.3.091>
8. Hwang HJ, Lim MR. The mediating effects that nurs-

- ing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have on their profession and psychological-wellbe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10):215-227.
<http://doi.org/10.35873/ajmahs.2017.7.10.020>
9. Lee OS, Gu MO.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6):682-696.
<http://doi.org/10.4040/jkan.2014.44.6.682>
10. Benson G, Ploeg J, Brown B. A cross-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0;30(1):49-53.
<https://doi.org/10.1016/j.nedt.2009.06.006>
11. Lim SM, Yeom YR. Effect of empathy abi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person-centered care of nursing students in the region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2;20(10):25-32.
<https://doi.org/10.22678/JIC.2022.20.10.025>
12. Lee KO, Chae HJ.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0):355-365.
<https://doi.org/10.14400/JDC.2016.14.10.355>
13. Yoo SY. The relationships among focusing manner,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8(5):781-799.
<http://doi.org/10.22143/HSS21.8.5.44>
14. Oh EH, Lee S.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 sensitivity on caring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8):619-628.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619>
15. Kim YK.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academic burnout.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2024;9(6):95-100.
<http://doi.org/10.31152/JB.2024.12.9.6.95>
16. Lee OS, Kim MJ.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7):319-328.
<https://doi.org/10.14400/JDC.2017.15.7.319>
17. Raeissi P, Zandian H, Mirzarahimy T, Delavari S, Moghandam TZ, Rahimi G.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mong nurses. *Nursing Management*. 2019;26(2):31-35.
<https://doi.org/10.7748/nm.2019.e1820>
18. Oh EJ.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2):549-560.
<https://doi.org/10.14400/JDC.2021.19.2.549>
19. Papa MJ, Daniels TD, Spiker BK.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and trends*. Los Angele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8. p. 21-72.
<https://doi.org/10.4135/9781483329239>
20. Yoo MS, Kim YS, Whang MS, Aan JA.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2;7(1):18-27.
<http://doi.org/10.15715/kjhcom.2012.7.1.18>
21. Joung WJ, Park EB, Kim RH, Lee WJ, Lim JS.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20;24(2):49-57.
<http://doi.org/10.38083/JKNS.24.2.202008.049>
22. Cho JH, Baek KH, Cho MO.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ate competence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 Digital Convergence. 2019;17(6):257-265.
<https://doi.org/10.14400/JDC.2019.17.6.257>
23. Park JA, Hong JY. Study on the effect of drinking motivatio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drink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13):251-268.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3.251>
 24. Shin EJ.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2013;17(1):1-12.
 25. Won SY, Choi HJ.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3):909-926.
<http://doi.org/10.22251/jlcci.2020.20.13.909>
 26. Jung HR, Choi HJ, Park M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WLE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0;50(4):611-620.
<https://doi.org/10.4040/jkan.20109>
 27. Rubin RB, Martin M, Bruning SS, Powers DE. Test of a self-efficacy model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Quarterly*. 1993;41(2):210-220.
<https://doi.org/10.1080/01463379309369880>
 28.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UCI: G704-000203.2003.47. 6.003
 29. Kang MH, Lee S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6):265-293. UCI: G704-000387.2013.20.6.003
 30. Kim HS, Park WJ, Ha TH. The effects of education of communication on perceptual orientation,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06;10(2):95-111.
 31. Won JY, Seong GB.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grit, and adjustment to college o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6):837-85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837>
 32. Ko ID, Choi BY.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emotional clarity and problem-focused coping as sequential mediato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22(21):143-155.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1.143>
 33. Park YS. An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communication competence, stress coping skil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21. p 104-111.